

單純化、簡略化되는 後期樣式도 包含하는 典型的인 新石器時代 櫛文土器遺蹟이다.

益山 王宮里 石塔 調査

黃 壽 永

一、

全北 益山郡 金馬面에서 南으로 約二km 全州로 통하는 道路邊 低丘위에 자리잡은 이 五層石塔은, 塔身은 北으로 기울고 塔基는 土壇을 이루어 일찍부터 重修의 論議가 있었다. 一九六五年十一月下旬에 着手하여 解體가 進行되었고 十二月 上旬에 이르러 第一層屋蓋 上面과 心礎石에서 각기 舍利藏置具의 收拾이 있었으나 酷寒으로 말미암아 塔基部를 다시 埋沒한 후 越冬하였다. 그리하여 今年 三月에 이르러 復元키로 된 單層基壇 石材의 現場治石에서 비롯하여 再建이 着手되었으나 이와 併行되어서 塔 周邊의 發掘과 塔基의 調査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前後 七個月이 걸린 이 塔의 重修는 五月末日로서 各工程을 거의 完了할 수 있었는데 바 그 사이 收拾된 資料는 이 石塔에 관한 研究를 위하여 매우 貴重한 것이었다. 아마도 石塔一基에 대한 調査로서는 해방후 最大의 工費와 規模의 것이 었는 바 이에 參與한 사람들(洪思俊 申榮勳 鄭明鎬 孫龍文 鄭復永 金千石)의 勞苦에 대하여서는 적지 않은 報答이 있었다.

二

古代遺構를 重修하여 未知의 遺物을 檢出함은 하나의 成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물며 이 石塔에서 收拾된 舍利具와 같이 保存이 完全한 경우에는 한층 貴重하기도 하다. 合計 五個의 舍利孔중 네 곳에서 각 二個의 金銅函과 金函 純金板經과 靑銅佛像 유리製舍利瓶 구슬類 등 그 중에는 初有的 것도 있어 黃金燦爛한 그 壯嚴이 크게 注目을 받기도 하였다(本紙七卷一號「益山王宮里石塔內發見遺物」參照) 그러나 石塔調査의 主目的이 결코 이같은 藏置品 收拾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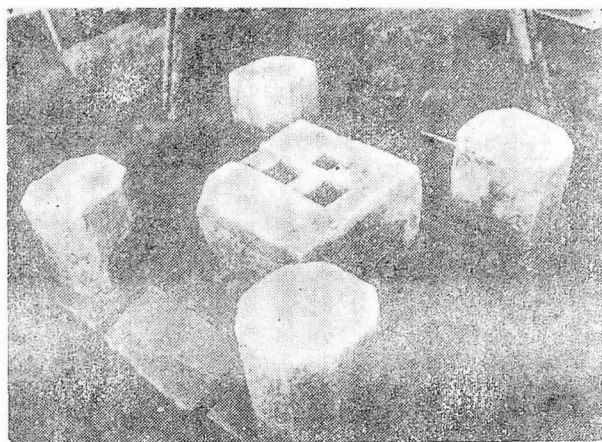
어 石塔 그 白體의 遺構에 두어서 內外的 結構方式이나 그 樣式的 系譜 및 伽藍配置와의 關係 등에 대한 解明이 優先되어야 할 것인 바 이같은 注目과 解明은 當面한 石塔工事의 完遂를 위하여서도 그 前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王宮塔에 있어서 특히 基壇部는 일찍이 破壞되어서 높은 土壇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 內部的 調査는 이 塔에 대한 區區한 論議에 대하여 解決의 열쇠를 줄 것으로 期待하여 왔었다. 舍利에 對한 期待보다도 더 큰 關心이 이 土壇 解明에 있었는 바 石塔研究에 있어서 基壇調査는 그 年代와 樣式을 가리는데 가장 重要한 일이기도 하다. 동시에 이 塔이 巨構이어서뿐 아니라 그 占定 地點이 옛부터 上古의 宮闕址라고 傳稱되어 왔기에 그와의 關係 또한 큰 注目과 關心事였다. 그리하여 이번 石塔工事와 調査를 통하여 收拾된 資料에서 얻어진 몇가지 要點은 대략 다음과 같다.

三

첫째 石塔解體에 따라서 塔內部(특히 三層以下)의 積心部와 基壇部에서 이 石塔材보다 年代가 앞서는 舊石材와 瓦當등이 發見되므로써 이 石塔의 年代가 그들보다도 後代의 것으로 추정될 수 있었다. 이를 바꾸어 말한다면 이 石塔을 建立할 때 屋蓋나 塔身 基壇等 주로 外部에 露出되는 石材만을 新造하고 塔身 또는 基壇內部에 所要되는 것들은 이 遺蹟址에서 採取轉用한 事實이 推定되므로써 종래 막연하게 百濟時代라고 하던 發說은 再考되어야 할 것으로 意見이 모아졌다. 이같은 百濟說은 隣近하는 彌勒寺址石塔과 이 石塔이 樣式上 서로 連續되는 作品.으로 본 곳에서 말미암은 것이었다.

둘째는 基壇의 解土를 통하여 塔基 四隅에서 八角柱와 그 中央에서 巨大한 心礎石이 露出되었었으며(心礎上에는 方形石과 雜石을 쌓아 올린 剎柱가 第三層에 이르게 하였다) 이 塔基를 돌아서 單層方壇을 結構한 甲石面石 등의 破材가 多數 發掘되므로써 基壇의 原形이 짐작케 되었다. 그리하여 이 基壇部가 일찍이 崩壞됨에 이르러 古代의 柱形礎石(益山彌勒寺址 法堂址 또는 扶餘 臨江寺址의 것과 同形)등으로서 補強하고 다시



附土하여 마침내 土壇形을 이룬 것으로 推定되었다. 이 곳에서 收拾된 基壇部材의 양식에서도 이 塔年代는 既往의 發說보다 더욱 降下됨을 알 수 있었는데 이 基壇部는 이번 工事에서 新材로서 復原되므로써 종전의 土壇이 除去되었던 것이다.

세재로 이 石塔의 結構方式이나 그 樣式을 통하여 上記한 바와 같은 彌勒寺 石塔 또는 扶餘定林寺 址五層石塔과 같은

百濟塔과의 系譜를 더욱 確認할 수는 있었으나 이 같은 事實만으로서는 石塔의 年代를 그들 百濟石塔直後에 두어서 新羅統一初期로 보아야 할 根據가 될 수 있을런지 檢討의 焦點이 되었다. 從前에 있어 內外學者의 考察은 이 塔附近에서 發見된 瓦當片(古蹟圖譜四卷一四三、四) 또는 塔一部分의 檢尺에서 얻어진 使用尺의 推定(米田美代治·「朝鮮上代建築의 研究」)이나 樣式論에서 온 것이나 今次 調査에서 收拾된 舍利具나 基壇部의 모습 塔基發掘等 增加된 資料에서 미루어 그 年代는 根本적으로 再檢되어야 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 石塔이 지니는 百濟樣式과의 類似點은 도리어 後代에 이르러 百濟故土를 中心으로 流行한 所謂「百濟式」 石塔의 一例로서 이 石塔을 考察할 수 있는 可能性에 대하여 論議를 集

中시켰다. 바꾸어 말한다면 韓國石塔의 地方樣式의 成立을 보이는 하나의 代表的 造形으로서의 새로운 考察點이 마련될 수 있는 나 하는 것이었다^①.

끝으로 塔周圍의 發掘을 통하여 특히 그 北方에서 百濟下代가 확실한 敷石과 夫瓦列^②의 延長이 確認되므로써 上記한 바와 같은 古代 遺址로서의 推定과 後代에 이르러 이 石塔이 그 西南地點에 始建된 事實이 推定되었는바 이 같은 古代遺墟로서의 推定은 특히 이 遺址를 周圍하고 있는 長方形土城의 實測과 銘瓦^③ 등의 收拾을 통하여 더욱 굳어질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東國輿地勝覽^④(卷三三 益山山川條 王宮井)이나 또는 이 石塔에 관한 唯一의 文徵인 邑誌記事^⑤나 「왕검塔」이라는 傳稱 또는 益山의 地理的 歷史的 背景과 石塔建立의 因緣이와 關聯된 圖織說등이 아울러 注目되었다. 동시에 이 石塔工事와 매를 같이하여 彌勒寺址의 發掘이 進行되므로써 두 곳에서 出土된 古石材의 對比등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이와 아울러 益山地區에 分布된 풍부한 遺蹟과 遺物에 대한 注目을 새롭게 하므로써 이들 全般에 대한 綜合的 조사와 必要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이번의 王宮塔을 中心으로 삼은 調査에서 收拾된 資料^⑥는 앞으로 신중히 整理報告되어야 할 것이다.

(六月十五日)

註 ① 高裕變先生은 一九四三年 十月 日本 東京에서 發表한 「朝鮮塔婆의 樣式變遷(要旨)」에서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東國大刊「佛教學報」第三輯近刊)

「이어서 高麗가 되자 佛塔의 經營이 一時 復興된 感이 있었으나 그 樣式은 주로 中部朝鮮으로부터 北部朝鮮으로 普及한 듯하며 西南朝鮮 곧 百濟의 舊領內에 있어서는 在來의 百濟原初樣式이 高麗의 으로 更新되어 이곳에 所謂 百濟式인 것이 보이게 되었다」
② 이 瓦列는 百濟下代의 것으로서 그 중 一個에는 ③의 銘이 있었다.

③ 이 土城北方 丘上的 建物址에서 上門大宮이라는 陽刻左書의 平瓦銘片이 多數 出土되었다.

④ 王宮井 在郡南五里 世傳古宮闕址

⑤ 益山郡誌(上) 古蹟 王宮塔條

在宮壇前。高十丈累石宛然俗傳馬韓時所築……一說云道說謂完山地理若隱狗形建塔于此以壓狗尾蓋爲麗太祖壓勝甄萱而塔成之日完山畫晦三日……

⑥ 이 資料中の 하나인 石塔과 同代의 石燈火舍石片(不等邊八角形)

一個는 扶餘博物館에 移管되었으며 其外의 主要舊石材는 塔前에 陳列되었다.

襄陽 禪林院址에 對하여

鄭 永 鎬

禪林院址는 江原道 襄陽郡 西面 黃耳里 米川谷①에 있는 寺址인데 一九四八年十月頃에 이 곳에서 貞元廿年銘 新羅梵鐘이 出土되어 더욱有名해 졌다. 그 후 銅鐘은 곧 五台山月精寺로 移管되었으나 六·二五動亂때 불(寺刹火災)에 녹아서 지금은 形便없는 그 殘片이 國立博物館에 保管되어 처음 發見當時의 기쁨 이상으로 슬픔만을 남겨 놓았다. 이 薄命의 新羅梵鐘과 그 出土地에 對하여는 恩師이신 李弘植教授께서 이 紹介하신 바② 있으니 再論을 避하고 여기서는 다만 其間 二次에 걸친 筆者의 現地踏查에서 倒壞된 數點의 石造遺物이 調査되어 當局에 依하여 復原됨으로서 原形을 볼 수 있게된 多幸스러운 經緯와 그 遺物等을 簡單히 紹介하고자 한다.

昨年 三月初 筆者가 처음으로 이곳을 踏查하였을 때는 石物의 各部材가 原位置에서 흩어져 半쯤 土中에 묻혀 있는가 하면 石燈火舍石은 築臺 밑으로 굴러 떨어져 있는 등 散亂하였으나 部材를 點檢 調査해 보니 復原이 可能함을 알 수 있어서 上京後 곧 當局에 報告하여 遺物과 寺址에 對한 文化財假指定으로서 爲先 保護措置를 取해 놓고 晩秋에 이르러 復原工事を着手, 二週日만에 完工하여 東·西九〇m 高三一四m 되는 石築위 約三千坪 넓이의 寺址에 三層石塔과 石燈, 浮屠, 弘覺禪師碑龜跌

및 螭首 등이 우뚝우뚝히 서게 되었고 이로써 이 遺物 四點은 文化財委員會의 決議에 따라 寶物로 指定되었으며 寺址一帶는 史蹟地로 保護를 받게 되었다.

一、寺址概況

麟蹄로 넘어가는 黃耳二里舊路에서 約一·五km 되는 米川谷 祖峰(標高一、〇八三m) 南麓에 築臺를 쌓은 臺地가 寺址인데 그 東便으로 法堂址가 있어 現在도 方形의 礎石(邊長 六〇cm)이 三、四m의 間隔으로 數個 묻혀 있음을 볼 수 있다. 西便에는 西北쪽으로 또 한 段의 石築을 쌓고 石燈을 세웠으나 그 곳에 法堂址로 推定되는 遺構가 없음을 注目되며 耕作地로 되어있는 寺址全域에서는 新羅下代로부터 麗代에 이르는 瓦片이 無數히 出土 發見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곳一帶를 發掘調査하여서 學術的인 研究를 進行시켰으면 좋겠다.

二、三層石塔

全高 約 五m인 典型的인 新羅式一般型의 石塔으로 法堂址 南側 六·五m 되는 原位置에 세워졌다. 二層基壇上에 塔身을 받고 있는데 下基에는 撐柱가 一柱 있고 甲石上面에 四分圓의 물딩과 角形받침으로 上基를 받고 있으며 上基 各面은 撐柱 一柱로 兩區하여 八部衆 二驅씩을 陽刻하였고 甲石下面에는 副椽이 刻出되고 上面에는 角形받침 二段으로서 塔身을 받고 있다. 初層塔身 上面에는 方形의 舍利孔(一九cm×一九cm)이 있는데 깊이 一〇cm에서는 圓形으로 되어 五cm가 더 깊어져 그 意匠이 注目되었다. (復原前調査) 各 屋蓋石의 받침은 五段씩이고 輕快하게 反轉된 四隅轉角에는 風磬小圓孔이 있으며 落水面은 平薄하게 흘렀고 上面二段의 角形받침으로서 그 위의 屋身을 받고 있다. 露盤까지는 完全하고 徑一〇·五cm의 椽柱圓孔이 있으며 그 위 相輪部는 不完한데 溪流邊에서 收拾하여 올려 놓은 것이다. 塔 앞에는 拜禮石이 一座 있는데 前面二區 側面一區의 眼象이 있을 뿐 上面에 蓮瓣等의 彫飾은 없다. 基壇部의 차임이나 各部의 彫刻手法으로 보아 年代는 新羅下代로 推定되며 慶州 南山里 西三層石塔과 同系의 樣式이라 하겠다. 實測値는 (cm) 初層塔身高 八一·二層塔身高三〇·幅 八五·幅 七四